

From Church Planting Success to Genocide (Korean)

[성 공적 교회 개척에서 인종학살까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손 길이 달지 않던' 나라 전체가 '교회'가 되었다. 인구의 약 90%가 교인이 된 것이다. 교회개척과 교회 성장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이다. 1994년 봄 100일이 조금 넘는 동안 시민들과 교인들에 의해 다른 교인을 포함하여 거의 백만명이 살해되었다. 이 나라가 어딘가 하면 르완다이다. 복음전파와 교회개척에 있어서 엄청난 성공이 있었지만 인종간 관계에 복음이 거의 스며들지 못했다. 교회에 사람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는 없었다.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단기적인 동시에 장기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개척과 성장이 잘 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공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분명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국가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국가들이 함께 있다.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써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우리의 사명과 성공의 기준은 '변모'를 포함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사람과 사회가 전인적으로 변모되기를 원한다. BAM 운동은 온전함으로 윤리적 사업을 함으로 변모된 삶이 온 누리에 전해지는 것을 지향한다. 멋진 말이다. 그러나 무슨 뜻인가? 변모:이것은 선하고도 지속적인 변화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간세대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BAM은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를 통하여 모든 관계내에 신앙이 작용하도록 하는 실천이다. 사람들과 사회가 변모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시장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SME's)에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다. 이들은 변모를 위한 강력한 에이전트이다. 경제적으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면에서 발전된 경제의 근간이며, 가난한 나라나 지역에서는 그래서 아주 찾아보기 어렵다. 삶:우리 모두는 정치적이고 문화적 컨텍스트에서 작용하는 육체적, 사회적, 영적, 감정적, 경제적 그리고 여타의 다른 필요를 지닌 인간들이다. 그래서 변모는 전인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 사회 모두에 해당된다. 이것이 '온전'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이다. 전체적이며 완전한 어떤 것. 우리의 사명은 교회개척과 전도 이상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또다른 르완다를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온누리:우리가 우리 자신을 좁은 지역에 국한시킨다면 BAM 운동은 하나님께도 우리 사명에도 결코 맞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하나님의 원심력의 일부가 되어 우리 앞에 있는 안락함을 벗어나 밖으로 움직여야 한다. 바로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로.

Mats Tunehag
Sweden
August 2011

www.MatsTunehag.com